

그리운 님들께

거룩한 땅,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순신입니다

청년Ⓜ교가 살아야 한국Ⓜ교가 살고, 한국Ⓜ교가 살아야 한국ㄱ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교!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갑니다!

### 1. 저희 가족은요...

대찬이가 3년만에 키르기즈를 방문하여 겨울방학 1달간 엄마아빠랑 지내다 다시 복귀하여 2학년 2학기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근 준비가 미흡한 자신에게 찾아온 '심장이 두근거리는 멋진 인턴의 기회'를 놓치면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뼈에 사무치는 경험을 했답니다. **아빠가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하더니...** 아들아, 아빠의 기도 응답인 거는 알고나 있냐?



예원이는 의대 6년 중 공부할 분량이 가장 많다는 본과 2학년이지만(개학하여 2주 동안 배워 시험 본 순환기학 분량이 ppt 2,000장이 넘는다니 어쩐다나), 임상공부가 너무 너무 재미 있고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ice hockey를 매우 사랑합니다.

아내는 정신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얼굴이 좋아졌답니다. 남편이 말만 잘 들으면 더 좋아질 거랍니다. IT mir 학원 오피스를 재계약하느라 신경전을 벌였지만, **하늘의 은혜로 30개월 재계약을 완료해서 기쁨이 큼니다.** 이 땅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이 기쁨이 넘치기를 꿈 꾸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만 85세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신가 봅니다.

## 2, 이동식 중고초음파장비 구입



(새로 구입한 초음파 장비. Versana Active)

이동식 중고초음파 장비(미국제 General Electric. Versana Active)를 구입했고, 공항 통관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키르에서 당분간은 최고 수준의 이동식 초음파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동안 해상도가 떨어지는 걸로 많은 환자들을 힘들게 진료하던 현지인 의사 디나라가 이젠 자부심이 차오르며 매우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비 구입을 위해 기쁨으로 후원에 동참해 주신 **최유현님과 임채학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키르의 소외된 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거북선은 3월 30일로 예정된 출동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3.한국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키르에 입국했습니다.

목(디스크 수술)과 흉부(흉선 낭종) 검사 소견상 1년 전에 비해 **특이소견은 없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두드림 투게더**' 축제 (2월 23~24일, 2+2 인턴스.교.사 플랫폼)에 참석하여 지난 17년간의 삶과 사역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대한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작은 한 부분이라도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당근 3개와 사과 1개를 믹서기에 갈아 당근쥬스를 아침식사 대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약을 먹지 않았을 때 **155/100mmHg** 였던 혈압이 약 끊고 **당근쥬스**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122~135/80~88mmHg**정도 나옵니다.

#### 4. 생.근 소식

단출하고 아기자기하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루슬란과 술탄도 살 길을 찾아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일당 백이 될거라 기대하며...

자\*백\*.도.사님은 분리 개척하여 독립적으로 사역하며 가정 ㄱ.회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씀에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지만,

열매, 결과, 성과, 업적, 규모, 숫자, 욕심, 집착과 일정 거리를 두고

주어진 과정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 5. '틸렉마을'을 히포크라테스의 1<sup>st</sup> medical base로 정했습니다.

'틸렉마을'은 집에서 승용차로 1시간 30분 거리의 무의촌으로, 카자흐스탄 국경과 인접한 땅끝 마을입니다.



간호사 한 분이 보건진료소에서 1,500명 마을 주민들의 1차 진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20세에 그 마을로 시집가셔서 70세인 지금까지. 남편은 4년전 돌아가셨다네요.) 지난 50년간 틸렉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 거의 대부분 이 분이 직접 받아 태줄을 자르셨답니다.

의료거점을 만들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셨고, 즉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겠죠 ...

의료적으로도 소외된 곳이지만 주민들은 친절했고 저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유치원도, 학교도 건물이 매우 깨끗하며, 보건진료소의 빈 공간 3곳에 진료를 위한 시설과 기본 의료장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 6. IT mir 학원 소식

2월 27일부터 3기 수강생 6명의 Scratch coding 기초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중고생이 다 보니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모두 무사히 마지막까지 완주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며 월세를 대폭 올려 받으려던 오피스 주인과의 신경전으로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지만,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장소를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기존의 오피스를 계속 사용하기로 재계약 했습니다. JPM의 후원에 큰 감사!

### 손 모음 제목

1. ‘월렉마을’을 1번 medical base로 선정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도록
2. 3월말부터 시작될 이동진료시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3. IT mir의 학원사업자등록(리젠지아)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4. 루슬란과 술탄의 믿음의 더욱 견고해지도록
5. 자\*백\*님들이 가정교회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의 시선을 담아

비쉬퀵에서

이순신, 박기쁨, 예원(대4), 대찬(대2) 올림